

## 양차 대전과 프랑스의 전쟁기념문화

- 파리(Paris) '군사박물관(Musée de l'armée)'을 중심으로 -

李宰源\*

1. 머리말
2. 기념연구와 프랑스의 전쟁기념문화
3. 군사박물관 100주년과 전쟁기념 사업
4. 아테나(ATHENA) 계획과 양차 대전 기념
5. 맺음말

### 1. 머리말

“장소에 내재되어 있는 기억의 힘은 위대하다”는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 키케로(M. C. Cicero)의 말은 기억의 형성을 위해 장소들이 갖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키케로는 역사적인 현장에서 받게 되는 인상들이 단순히 누구로부터 듣거나 책을 통해 받게 되는 느낌들보다 “몇 가지 면에서 훨씬 더 생생하고 깊이 각인된다”고 생각했다. 그가 지적했듯이

장소들은 구체적으로 지상에 위치하면서 그 회상을 공고히 하고 증거할 뿐 아니라, 단기적인 기억을 능가하는 지속성을 구현한다.

한 사회나 국가의 집단기억(collective memory)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며 특정집단의 정체성이 구체화되는 특정 공간을 창조함으로써 공고해진다. 기억은 공간을 통해 제도적으로 구축되고, 조직적으로 전승되며, 다양한 문화적 매체를 통해 사회적으로 전파된다. 이러한 역사적 장소를 프랑스의 역사가 피에르 노라(Pierre Nora)는 ‘기억의 터(lieux de mémoire)’라고 일컬었다. 노라가 말하는 기억의 터는 단순히 기억의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환기력을 지니는 특정 사물, 장소, 기억을 담고 있는 상징 행위와 기호, 기억을 구축하고 보존하는 기능적 기제 등을 총망라하는 개념이다. 기억의 터는 단순한 기억 대상이 아니라 기억에 대한 ‘기억을 깨우는 매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광의(廣義)의 기억의 장소에는 기념행사, 기념비, 축제, 기념일, 동상, 묘비, 사원, 박물관, 기념관, 영화, 소설, 예술작품 모두가 포함된다. 이들은 특정사회가 자기 과거와 관련하여 가장 뚜렷하게 자신들을 규정하는 하나의 활동무대가 되며, 다음 세대에게 기존의 지배적인 가치를 전수할 의도를 지닌 교육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

기념관은 기억의 문화적 매체 중 가장 대표적이며 최종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그곳은 단순하게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에 관한 유물들을 전시해 놓은 장소일 뿐 아니라,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기억이 만나는 기억의 매개 역할을 하는 공간이며, 과거 세대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 현 세대가 만들어낸 지속가능한 기념의 장소이기도 하다. 다양한 종류의 기념관 중 전쟁기념관은 전쟁에 대한 기억을 확인하고 보존할 수 있는 곳이다. 전쟁기념관은 전쟁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특정 인물이나, 유물, 역사적 사건을 과거의 잔해에서 끄집어내어 영구 불멸한 의미를 부여한다. 한 국가 또는 그 내부의 유력한 사회집단은 그곳에서 그들이 간직하고 계승하고자 하는 기억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자신들 집단의 보편적 정당성을 주장한다. 집단적 기억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자신의 정당화, 집단적

\*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전문연구원

구심력, 애국심 등을 피하는 정치화 현상을 수반하기도 한다. 이곳에서는 과거의 기억이 쉽게 정형화되어 상상력을 제한하며 전쟁 당시의 정황을 왜곡하기도 한다. 전쟁기념관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적 기억의 형성이나 교육적 사고력을 제한하기도 하며, 국가주도의 '역사 만들기' 혹은 '국민 만들기'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도 기능한다. 이렇듯 전쟁기념관을 통해 형성되는 문화적 기억에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국가 혹은 지배집단의 일방적 의도의 관철이거니와 한 것은 아니다. 문화적 기억화 과정에서 집단 구성원들이 갖는 복합적인 기억의 양상이 반영되기도 한다. 공식화된 역사적 서술로서의 전쟁의 기억과 다양한 사회집단의 '집단적 기억'은 서로 만나고 충돌하면서 새로운 '기억의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다.

'기념의 공화국'<sup>1)</sup>이라고 일컬어지는 프랑스에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전쟁기념관이 1960~70년대에 43개나 새로 건립되었다. '제도화된 기억의 장'으로서의 전쟁기념관은 이후에도 꾸준히 설립되어 승전을 기념하고 희생을 애도하는 기념의 장소로 자리매김했다. 이와 더불어 양차 대전의 종전기념일에는 어김없이 기념제나 추모행사가 뒤따랐는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중의 항독투쟁은 프랑스인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양하는 기념비적 사건으로 범국민적인 조명을 끊임없이 받아오고 있다.<sup>2)</sup>

프랑스가 이토록 과거의 전쟁을 기억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매체로서 전쟁기념관을 끊임없이 새로 건립하고, 전사자에 대한 기념행위를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속적이고 영원한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들의 기억

1) 프랑스를 기념의 공화국이라고 일컫는 것은 기념하는 주체의 규정되지 않은 다수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프랑스의 기념의 영역은 민족을 구현하는 중앙집권국가의 공적 영역으로부터 매우 국지적이고, 특별하며, 사적인 관광-상업적인 영역으로까지 확산된다. Alain Delissen, "Mnemonic schemes of peripheral wars(Algeria, Indochina, Korea) in the kingdom of commemoration", 『20세기 전쟁기념의 비교문화사: 역사적 지형도와 담론의 헤게모니』 제1차 국제학술대회 발표문, p. 22.

2) Gérard Namer, *La commémoration en France de 1945 à nos jours* (Paris: L'Harmattan, 1987), pp. 6-9.

대상은 무엇일까? 프랑스의 전쟁기념관은 병사들의 '영웅적인 죽음'과 '조국을 위한 희생'의 측면을 강조하는, 다시 말해, 전몰용사에 대한 기억이라는 전통적인 의미만을 강조하는가? 아니면 희생의 의미에 대해 반문하고 깊은 애도와 성찰을 유도하는, 더 나아가 민간인의 고통이나 평화를 강조하는 기념의 장소로도 사용되는가? 궁극적으로 과거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행위가 갖는 정치적, 문화적 의미는 무엇일까?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프랑스의 가장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전쟁기념관이라 할 수 있는 파리의 '군사박물관(Musée de l'armée)'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2005년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군사박물관의 역사와 전쟁기념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행해지는 전쟁기념문화활동 사업 등에 대해 조망해 봄으로써 프랑스 전쟁기념문화의 단면을 구성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2006년 이후 새롭게 개관한 군사박물관의 양차 대전 전시실을 중심으로 그곳의 전시방식과 특징, 그리고 그것이 프랑스인들에게 갖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타 국가의 군사박물관에서는 어떻게 전쟁기념문화를 국민들에게 접목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개괄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비교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쟁기념의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보다 성찰적인 기념문화에의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먼저 전쟁을 기념하기 위한 문화의 의미는 무엇인지, 프랑스가 '보불전쟁' 이래 전쟁기념물을 통해 어떠한 방식과 담론으로 전쟁기념문화를 구축해나가는지를 소개해보도록 하겠다.

## 2. 기념연구와 프랑스의 전쟁기념문화

### (1) 기념연구의 대두와 필요성

근래 들어 국내 학계에서는 기억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집단지역’, ‘대항구역’, ‘기억전쟁’ 등과 같은 용어가 웅변적으로 나타나듯이 기억의 문제는 본래적인 철학, 심리학의 영역을 뛰어넘어 사회적, 정치적 차원에서 새로이 점검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연구경향은 과거의 문제에 보다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아직 사회·문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엄밀한 방법론으로서의 기억이론은 부재하다. 기억의 이론이 보다 사회·문화과학적인 차원으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기념’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

기념이라는 개념은 한 사회 또는 특정한 사회집단이 자신의 과거를 관리하는 형식을 부각시킨다. 한 공동체는 자신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자신의 기원, 생존과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특정 인물이나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지속적으로 기념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따라서 기념이란 한 공동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배타적 행위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상징적 행위들, 즉 역사 서술, 종교적 의례, 축제, 예술적 형상화 작업, 그 외에 국경일 제정과 같은 각종 법적, 정치적, 문화적 조치들이 두루 포함되며 이를 통해 배타적인 집단기억이 구축된다.

19세기 이래 근대 국민국가에서 전쟁기념은 현재의 삶이 전사자들의 고귀한 희생에 기반하고 있음을 애써 부각시킴으로써 국민을 분열에서 통합으로 이끄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해왔다. 공적인 전쟁 담론은 희생을 미화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드높이려는 성향을 오래도록 노정해왔다. 그러나 ‘총력전(總力戰: total war)’<sup>3)</sup>을 겪은 20세기에도 이러한 행태가 유지되었는지의 여부는 다양한 공적 담론의 영역과 더불어 이를 매개로 형성된 다

3) 총력전이란 무제한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전쟁으로서, 전 국민을 소집 대상으로 삼고 국민경제가 가동할 수 있는 전 물자를 ‘총체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전방과 후방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총력전은 또한 첨단 무기들을 통한 ‘조직화된 대량살상’과 그에 따른 적의 완전한 무력화를 꾀하였다. 이와 같이 국가에 의한 전일적인 대량동원과 대량살상, 기술적 잠재력의 극대화 등과 같은 점에서 볼 때 총력전의 진행은 대단히 20세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진성·이재원 엮음, 『기억과 전쟁: 미화와 추모 사이에서』(휴머니스트, 2009), pp. 16-17.

양한 문화적 매체들을 두루 살피지 않고는 쉽게 결론지을 수 없다.

유럽에서 양차 대전은 죽음의 의미에 대한 물음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급진적 사고가 빠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관례적인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민족적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피해가 너무 막심했다. 국민의 엄청난 희생을 담보로 한 국가의 영광은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될 수 없었다. 근대적인 기념의 관례는 20세기에 도래한 극단적 폭력과 만연된 죽음 앞에서 호소력을 유지하기 힘들게 된 것이다. 죽음은 이전의 신성한 광휘를 잃어버렸고, 생존자들도 죽음에 준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양차 대전이 낳은 극대화된 ‘트라우마(trauma)’<sup>4)</sup>를 염두에 둘 때 기존 방식의 의미 부여가 과연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20세기의 전쟁기념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문화적 매체가 나타나는 점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이들 섬세한 문화적 매체를 동원함으로써 도저히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해 보이는 체험의 의미를 어떻게든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적 매체를 통한 전쟁기념은 어떠한 고유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여기에서는 과연 희생의 의미에 대해 반문하고 깊은 애도와 성찰을 유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희생을 미화하고 도구화하는 구태를 보여주고 있는지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다양한 문화적 매체들 중에서, 기념관이나 기념비, 그리고 영화가 전통적으로 희생을 미화하는 측면을 보여주는 매체인데 반해, 미술이나 문학 등은 주로 지배적 기억을 넘어서려는 저항적인 성향을 보여준다. 과연 이러한 매체 상

4) 현재 인문사회과학에서 ‘트라우마’란 전쟁이나 재앙, 사고 등과 같은 극단적인 충격이 정상적 의식에서 분리되어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으면서 끊임없이 환각, 악몽, 플래시백 등의 형태로 돌발적으로 재귀하는 증상을 가리킨다. 트라우마는 본래 해부학 용어로서, 육체적 ‘상처’를 가리키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 그것이 심리학과 정신분석학 용어로 정착되면서 육체적 상처나 감정적 충격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정신적 경험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이 증상은 과거를 기억하는 능력이나 미래를 전망하는 능력에 해를 입히고 결국 자기정체성의 상실을 초래한다. Ruth Leys, *Trauma: A Genealogy* (Chicago and London, 2000), pp. 18-40.

의 본래적 특성이 20세기를 거치며 유지되고 있는지는 본 연구가 제공할 수 있는 흥미로운 논점에 속할 것이다. 이러한 의문점을 밝혀내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기념관이나 기념비와 같은 대표적인 전쟁기념물을 통해 형성되는 프랑스의 전쟁기념문화에 대해 개괄적으로 고찰한 후, '군사문화'와 '국가주의'의 성지(聖地)라 할 수 있는 '군사박물관'을 통해 드러나는 양차 대전에 대한 기념문화에 대해 조망해보도록 하겠다.

## (2) 프랑스의 전쟁기념문화

역사가들은 서구에서 나타난 전쟁기념의 새로운 민주적 양식의 기원을 시민군대가 용병을 대신하던 나폴레옹 전쟁 시기로 추정한다. 로마의 기념물이 부조물로 된 개선문의 형태를 띠면서 통치자나 장군의 업적을 기념하는데 반해, 근대 국민국가는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평범한 군인들에게 공을 돌릴 필요를 느꼈다.<sup>5)</sup> 권좌에서 축출된 왕이나 박해받은 지도자들은 기억되었고 장군들은 기념관을 가졌지만 전쟁이나 혁명에 참가한 일반인들은 망각되었다는 인식이 이들에 대한 기념의 필요성을 야기시켰다. 18세기 말부터 다양한 단체와 정부가 시민군을 위한 기념물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리스 아굴롱(Maurice Agulhon)과 준 하그로브(June Hargrove)는 프랑스에서 그러한 기념물들이 전쟁기념 대상으로서의 군주를 몰러나게 했던 1870~1871년의 보불전쟁 이후에야 비로소 등장했다고 주장한다.<sup>6)</sup> 이 시기부터 전장에서 전사한 군인에 대한 추모와 숭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다.<sup>7)</sup>

5) Daniel J. Sherman, "Art, commerce, and the production of memory in France after World War I", in John R. Gillis(ed.), *Commemorations: The Politics of National Identity*(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p. 187.

6) Maurice Agulhon, *Marianne au pouvoir: L'imagerie et la symbolique républicaines de 1880 à 1914* (Paris: Flammarion, 1989), pp. 128-136; June Hargrove, "Souviens-toi", *Momuments historiques*, no. 124(décembre 1982-janvier 1983), pp. 59-60.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보불전쟁 이후 전 민족적인 차원의 추모작업이 광범위하게 진행된다. 패전이 남긴 상흔에 대한 일종의 보상심리로서 프랑스의 전쟁기념물은 일반 군인들의 '영웅적인 죽음'과 '조국을 위한 희생'을 애써 부각시키는 전략을 택했다. 당시에 세워진 많은 기념물들은 실의에 빠진 프랑스 민족이 고통과 수모를 이겨내고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강변했다. 전사자에 대한 기억은 미래의 영광에 대한 전망으로 전가되었던 것이다. 보불전쟁 이후 전쟁기념물 건립은 더욱더 국가의 통제하에 묶이게 되었지만, 점차 새로운 경향이 선을 보이기 시작한다. 우선 기념비가 묘비의 역할을 겸하게 되었다. 이는 고인에 대한 슬픔과 존중이 원한과 복수의 의식을 능가하게 됨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또한 무명용사의 죽음이 더욱더 강조되었다. 무명용사야말로 조국을 자신의 손으로 지키는 이상적인 공화주의적 시민상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것은 패전의 혼란 속에서 탄생한 프랑스 제3공화국의 표상이었다. 프랑스에서는 군인이 시민으로서 기억되었던 것이다.<sup>8)</sup>

프랑스의 전쟁기념물은 1차 대전 이후 급속도로 증가한다. 1914년 발발한 1차 대전은 처음으로 '총력전'이라는 전혀 새로운 성격의 전쟁을 등장시켰다. 국가에 의한 전일적인 대량동원과 대량살상의 기억은 인간의 정신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겨 끊임없이 고통을 가하게 되었고, 국가 전체가 전몰자들을 추모하는 일에 공감하면서 전 국토는 위령비로 뒤덮이게 된다. 11월 11일의 1차 대전 종전과 승리의 기쁨은 금세 잊혀졌으며 돌아오지 않은 자들의 이름만이 열거되어 남게 되었다. 1차 대전의 사망자들을 추모

7) 새롭게 등장한 기념물의 '민주적인 정신' 이외에도 동원군과 1870년대의 지원병에 대한 기념물은 지속적인 성격을 갖는 두 가지 다른 면(참전 군인들의 고향에 기념물을 설치하는 것과 획일적이고 표준적인 모델에 의존하는 것)에서도 과거의 전통과 단절된다. Daniel J. Sherman, "Art, commerce, and the production of memory in France after World War I", p. 187.

8) 이러한 인식과 경향은 시민이 군인으로서 기억되었던 독일의 경우와 근본적으로 대비된다. 전진성, 「조국을 위한 희생?: 근대 유럽의 전쟁 기념비에 관하여」, 『당대비평』, 2004, pp. 220-222.

하는 3만 6천 개의 지역 기념물 숫자는 1920년대 프랑스 매리(mairie, 시청, 동사무소, 면사무소 등을 포괄하는 행정 관청)의 숫자와 동일했다. 전쟁에서의 프랑스의 막대한 인명손실은 전후 기념물의 전례 없는 규모에 대한 설명이 된다. 어떤 참전국보다도 전쟁의 대가를 무겁게 치른 프랑스 측 사망자 수를 약 백삼십만 명 정도로 추산하는데, 이 수치는 이전의 다른 어떤 전쟁에서보다 높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만연한 슬픔이 전쟁이 끝난 지 몇 년도 되지 않아 기념물을 통해 재현되어야 한다는 자가 증거는 아니었다. 1차 대전의 사망자에 대한 기념물의 증가는 단순히 자발적인 감정의 표출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기념행위에 대해 애도의 뜻을 더하는 집단적이고 국가적인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차 대전 이후의 전쟁기념물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그 이전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전의 어느 시대에도 경험해보지 못한 규모와 성격을 지닌 전쟁을 경험하게 된 프랑스인들은 그들의 경험을 기념하는 새로운 문화적 형식들을 창출해냈다. 그들은 장교와 일반 병사를 함께 매장한 미국의 전몰 병사묘지 형태를 수용하였다. 토마스 라쿠어(Thomas Laqueur)의 논고는 국가가 묘지와 묘비를 통해 죽은 자들을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흔적으로 남겨두려 한 점을 논증하고 있다.<sup>9)</sup> 다니엘 셔먼(Daniel Sherman)은 1920년대 전간기(戰間期) 시기에 프랑스에서 기념관 설립과 함께 모든 전몰 병사의 흔적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한계에 부딪혔음을 지적한다.<sup>10)</sup> 사망자의 숫자가 너무나도 방대하고, 많은 이들이 실종된 관계로, 프랑스를 비롯한 모든 교전국들은 무명용사의 탑을 건축하여 특정한 개인을 기억하지 않고 모두를 기억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9) George Mosse, *Fallen Soldiers: Reshaping the Memory of the World Wa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pp. 203-240.

10) Daniel J. Sherman, "Art, commerce, and the production of memory in France after World War I", pp. 190-191.

이런 방식으로 1918년부터 1920년대 중반까지 백삼십만 명의 프랑스 전몰자들이 국가의 상징적이고 애정 어린 공간을 점령할 수 있었다. 웅장한 기념식과 위령비의 건립이 수많은 죽음을 사적인 일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변모시켰다. 여기서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억누를 수 없는 슬픔을 주로 표현하였다. 1919년 7월 14일, 프랑스 혁명을 기념하는 '승리의 경축일'은 1920년, 무명용사의 장례일로 대체되었다. 각 지역마다 시와 학교, 기업, 가톨릭, 개신교, 유대교의 교당에서 기념비와 기념관을 설립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1차 대전 직후 프랑스인들의 심성(心性)을 표현한 것이었다. 전후에 건립된 전쟁기념비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이제는 평화주의를 표방했다. 이들은 전사자를 국가의 영웅으로 치켜세우는 대신 전사자의 가족-부모나 과부, 고아-의 슬픔을 표현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프랑스의 전쟁기념물은 전체적으로 평화주의에서 전쟁을 찬미하는 입장까지, 민간인의 고통으로부터 병사의 전투장면의 묘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특기할 만한 점은 전쟁기념비가 이제 전몰용사의 기념이라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었다는 것이다.<sup>11)</sup>

2차 대전 이후 국가적 기념행위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승전국의 기억에서조차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개인적인 영웅주의는 망각되었으며, 승리보다는 희생을 기념하였다. 군인보다 민간인 사망자가 훨씬 많았던 총력전 체제하의 2차 대전을 통해, 예를 들어, 가정이란 또 하나의 전선에서 행한 기여를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동원되지 않은 여성 역시도 단지 미망인이나 어머니여서가 아니라 남편과 자신에 의한 희생을 통해 그들 스스로가 역사의 한 부분임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겪은 남성과 여성, 그리고 아이들의 일상생활이 주목되었다. 전쟁의 경제적 측면, 여성의 역할, 군인들의 일상생활, 폭력과 애도 등등, 점점 전쟁의 보다 '인간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며 전쟁을 기념하고자 했다. 이제 전쟁기념물은 더 이상 전몰용사의 기념물일 수만은 없게 되었다. 더

11) 전진성, 「조국을 위한 희생?: 근대 유럽의 전쟁 기념비에 관하여」, p. 225.

구나 그것은 더 이상 과거를 찬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반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다.

‘총력전(total war)’으로서의 양차 대전과 그 전대미문의 경험이 남긴 트라우마(trauma)는 전혀 새로운 기억의 형태를 낳았다. 그것은 희생자에 대한 극단적인 미화를 조장하는 정치담론과 문화적 형태를 낳음과 동시에 개인의 죽음과 인권유린에 대한 새로운 성찰적 의식을 낳기도 했다. 권위주의 체제에 있어서는 전쟁기념이 체제를 정당화하는 도구로서 기능했던 반면, 성찰적인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전쟁기념이 국민들로 하여금 전쟁의 참상을 직시하고 과거를 반성하게 함으로써 평화와 민주주의의 의식을 함양하는 반면교사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처럼 이데올로기적 편향과 성찰의 가능성이 함께 극대화된 것은 매우 20세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념물, 묘지, 박물관, 기록보관소와 같은 유산들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것들은 사람들이 계급과 지역, 성별, 종교, 인종 등의 차이에 상관없이 공통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국가가 주도하는 기념의 시대는 명백히 끝나가고 있다. 전쟁기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여전히 많은 프랑스인들이 전쟁기념관을 방문하고 전쟁기념비 앞에서 참배한다. 하지만 더 이상 강제적이거나 의례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전쟁이 낳은 아픔을 어떻게 딛고 일어설 것이며, 그럼으로써 어떻게 더욱 평화롭고 민주적인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측면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전쟁기념문화에 대한 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다음 장에서는 프랑스의 가장 대표적인 전쟁기념관이라 할 수 있는 ‘군사박물관(Musée de l’armée)’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박물관의 역사와 전쟁기념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더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 행해지는 전쟁기념 사업에 대해서도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 3. 군사박물관 100주년과 전쟁기념 사업

앵발리드(Hôtel des Invalides)<sup>12)</sup> 내에 위치한 군사박물관은 기존의 포병박물관(Musée d’Artillerie. 1796년에 설립)과 군역사박물관(Musée historique de l’Armée. 1896년에 설립)이 1905년 6월 26일 통합되면서 탄생하였다. “군사적 임무를 상기시키고, 국방정신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한 특별한 유물들을 보존하고, 소개하며, 풍성케 할 목적”으로 설립된 군사박물관은, 1896년부터 1905년까지 군역사박물관장직을 역임했으며, 군사박물관 설립계획 입안자였던 방송(Vanson) 장군이 규정한 바와 같이, ‘시각교육’을 제공하고 군복무 기간 동안 젊은 군인들에게 부과된 군사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과거 군대의 기념물과 기억을 보존하는 곳이었다.<sup>13)</sup> 국방부장관의 보호, 감독하에 있으며 필요한 예산은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군사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부르봉 가문의 왕조시대, 나폴레옹 시대뿐만 아니라 제1, 2차 대전까지의 전쟁의 역사와 무기들을 보존하고 있다. 특별히 군사박물관은 프랑스군 역사에 있어 3개의 핵심적인 시기(왕정기, 제국 시기, 공화정 시기)에 해당하는 3명의 상징적인 인물(루이 14세, 나폴레옹, 샤를 드골)에 초점을 맞추어 유물을 전시하는 형식을 취한다.

국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군사박물관은 20세기 초 반군국주의와 민족주의

12) 나폴레옹의 무덤으로 유명한 앵발리드는 상이군인을 의미하며, 1671년 리베랄 부뤼앙(Liberal Bruant)이 루이(Louis) 14세의 명에 의해 부상병과 퇴역장병들을 위해 파리에 설립한 건축물이다. 앵발리드는 크게 나폴레옹의 묘가 안장되어 있는 돔 성당(Dôme), 적군으로부터 노획한 깃발을 진열해 놓은 생 루이 데 쟁발리드 성당(St. Louis des Invalides), 그리고 선사시대부터 2차 대전까지의 각종 무기와 갑옷, 문장 등을 전시한 군사박물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박신의, 『영광과 상처가 공존하는 곳, 앵발리드와 군사박물관』, 최호근 외, 『세계의 역사기념시설』(민중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pp. 249-258.

13) Caroline Barcellini, “Le musée de l’Armée ou l’enseignement par les yeux de la défense patriotique”, *Historiens & Géographes*, no. 390(avril 2005), p. 171.

사이에서 흔들리는 여론의 관심을 끌기위한 기관이고자 했다. 그러나 박물관 설립자들에 의해 표명된 이러한 입장과 현실과의 사이에는 심각한 괴리가 존재했음을 지적해야 한다. 20세기 초기의 대부분의 관람객들은 한정된 계층, 특별히 군인계층에 머물렀고 일반 시민들은 별다른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1차 대전은 국민을 단합시키는 중심지로 군사박물관을 변모시켰다. 군인들에게 군사교육의 장소이자 '애국 교육'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군사박물관은 전쟁 종결 후 많은 프랑스인들에게 국방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과거의 승리를 기념하는 장소로 인식되어졌다. 1차 대전과 함께 군사박물관은, 처음으로, 전선에서 수집해온 유물들을 관람하며, 기억을 되새기며, 전사자들을 추모하러 온 많은 관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sup>14)</sup>

“교우회는 우리에게 점점 더 소중해지는 전통을 보존할 뿐 아니라, 국가의 명예를 드높였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선배 군인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는 공들인 순례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프랑스 군대의 위대한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군인들과 항상 함께하며,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그들의 신념과 희망은 약해지지 않았음을 증언하고자 한다.

군사박물관의 전시실은 항상 열려있다. 방문객 수가 이렇게 많이 증가된 적은 없었다. 파리 시민들은 그들이 받고자 했던 위로를 발견하면서, 전선의 병사들의 헌신과 영웅적 행위를 종종 떠올리면서, 지속적으로 이곳을 방문했다.”<sup>15)</sup>

14) 현재는, 매년 군사박물관을 찾는 수백만의 방문객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에 이른다. 그들 중 상당수는 나폴레옹 시대의 유물이나 갑옷류에 관심을 갖는 반면, 초·중고, 대학생들은 양차 대전에 흥미를 느끼며 박물관을 찾는다. 연구자들이 아닌 일반 방문객의 경우 그렇다는 얘기이다. 2003년 88만 명의 관람객에 이어 2005년에는 100만 명이 이곳을 방문했다. Caroline Barcellini, “Le musée de l’Armée ou l’enseignement par les yeux de la défense patriotique”, pp. 181-183.

군사박물관 교우회(SAMA : la Société des Amis du musée de l’Armée)<sup>16)</sup>가 1차 대전 기간 동안 박물관의 활동을 지속시키기 위해 벌였던 노력을 상기시키는 이 문구는 전쟁 기간 동안 군사박물관의 모습과 활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많은 관객을 유치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물질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군사박물관은 전쟁이 진행되는 전장에서 가져온 전리품으로 풍성해졌으며, 전대미문의 관객의 증가를 경험하게 되었다. 활동이 침체된 다른 박물관과는 달리 1차 대전은 군사박물관의 발전을 위한, 박물관 운영과 기념방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전쟁 전리품을 보러 온 군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 관람객들의 범람은 박물관의 사명을 변화시켰는데, ‘애국적 교육’이나 ‘국방의 사명’과 더불어 전쟁 초기부터 형태를 띠기 시작하고, 전간기(戰間期) 동안 발전했던 ‘기념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전쟁 종결 후 이곳 앞뜰에서는, 프랑스 국가인 라 마르세이예즈(La Marseillaise)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적군으로부터 노획한 깃발과 부대의 상징물 등과 같은 전리품들을 대통령과 군사박물관장에게 바치는 엄숙한 의식이 거행되었고, 병사들에게 훈장이 수여되었으며, 장례식 혹은 화장한 유골을 이전하는 의식이 치러졌다. 또한 개선문과 함께 군사박물관은 1차 대전 종전 기념식을 거행하는 공식적인 장소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되었다. 결국 1차 대전은 군사박물관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데올로기적이기보다는 ‘내재적 현상’으로서의 배타적인 민족주의적 연설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박

15) 1차 대전 기간 동안 군사박물관 교우회의 기능에 대해 언급한 책자. 1918년 12월 25일, pp. 3-4. Caroline Barcellini, “La commémoration de la Grande Guerre au musée de l’Armée(1914-1925)”, *Guerres mondiales et conflits contemporains*, no. 212 (octobre-décembre 2003), p. 3에서 재인용.

16) SAMA는 1905년부터 1919년까지 박물관장을 지냈던 니옥스(Niox) 장군에 의해 1909년 창립되었다. 그것은 군사박물관이 그 임무를 맡고 있는 프랑스 군대의 역사에 관계되는 전리품과 무기 그리고 기념품을 보존하는 데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 협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Revue de la Société des Amis du musée de l’Armée*, no. 119, 2000에서 참조할 수 있다.

물관은 프랑스 전 국민에게 다가서는 중요한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던 것이다.

건물이 부서지고 파괴되며 전시품이 약탈당하는 등 2차 대전의 참화를 겪은 군사박물관<sup>17)</sup>은 전후에 대대적인 정비작업에 착수한다. 1946년부터 시작되어 거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공사는 단계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다양한 전시실을 확장해나갔으며, 전시품의 목록을 늘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1968년 1차 대전 전시실이 새롭게 개장했으며, 3년 후에는 2차 대전 전시실이 관람객들을 맞이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전쟁 관련 유물들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았는데, 주로 전쟁의 참상과 승리의 영광을 알리는 사진자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전시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양차 대전 전시실은 종종 관람객들의 불만은 자아냈다고 한다.<sup>18)</sup>

2005년, 군사박물관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거행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2005년 10월 28일부터 2006년 1월 15일까지 개최된 "변화 전의 마지막 회고(Un dernier regard en arrière avant transformation)"라는 제목의 전시회였다. 그것은 군사박물관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절대왕정기 무기 진열실의 창설로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물관의 현대화 작업에 이르기까지, 군대와 무기의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살필 수 있는 전시회였다. 이 회고전은 주로 간행되지 않은 도판자료와 특이하지만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유물들을 전시하고 소개하는 데 주력했다. 100주년 기념식에 즈음하여, 2003년부터 박물관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브레스

17) 군사박물관은 1947년에 '보존된' 유물들과 획득한 전리품에 대한 대대적인 전시회를 개최했다. 전쟁 종결 직후에 열린 이 전시회는 프랑스 국민들의 열렬한 애국주의적 호응을 얻어낼 수 있었다. Olivier Renaudeau, "Les aménagements muséographiques du musée de l'Armée depuis 1945", *Revue de la Société des Amis du musée de l'Armée*, no. 129, 2005, pp. 57-69.

18) Colonel de Buttet, "Au musée : la salle 1939-1945", *Revue de la Société des amis du musée de l'Armée*, suppl. 1971, pp. 15-18.

(Robert Bresse) 장군은 군사박물관이 3단계 시기를 거치며 발전해왔다고 소개했다.<sup>19)</sup> 그에 따르면, 첫 번째 시기는 1905년부터 2차 대전기에 이르는, 군사박물관이 확립되는 시기였다. 진열품의 내용과 박물관의 성격에 있어 매우 다른 두 박물관을 통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포병박물관은 무기와 기술의 발전양상을 조망할 수 있는 장소였고, 군역사박물관은 1870년 보불전쟁에서의 패배 후 독일에 대한 복수라는 애국적 열정으로 군대의 명예를 위해 설립된 박물관이었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두 박물관을 긴밀하게 결합하여 일관성 있는 '동질의' 박물관으로 탄생시키는 것이 이 시기의 과제였다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군사박물관의 활동이 둔화되고 정지된 '수면의 시기'였다. 비록 진열품들은 계속 늘어났고, 새로운 전시실이 정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대전 중 독일에 점령된 힘든 시기를 거친 후, 박물관은 탈식민화 전쟁과 냉전으로 인해 그 후견인 역할을 하는 국방부로부터 전혀 관심이나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어려운 시기를 거친 후, 1990년부터는 효과적인 재정적 경영과 내부적 정비, 그리고 정부의 후견하에 특화된 활동을 전개하는 정상화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한다. 이 시기에 군사박물관의 현대화 계획인 아테나(Athena) 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군사박물관의 역사와 전쟁기념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이외에도, 프랑스 정부 차원에서 양차 대전과 관련하여 어떠한 전쟁기념문화활동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쟁기념을 관장하는 기관은 누구인지? 등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프랑스의 전쟁기념문화를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프랑스의 공식기념일 목록<sup>20)</sup>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전쟁관련 사건이 많지

19) "Une muséographie plus pédagogique, plus moderne. Un entretien avec le Général Robert Bresse, Directeur du Musée de l'Armée", *La Revue Parl éralaire*, no. 883 (septembre 2005), pp. 57-61.

20) 프랑스 기념일에 대한 목록과 관련 자료들, 참고문헌 등에 대해서는 다음 사이트를 참조할 수 있다. <http://www.culture.gouv.fr/culture/actualites/celebrations2005/celebrations>



않음을 알 수 있다. 전쟁은 드물게 기념된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 전쟁 기념일은 다른 국경일에 비해 예외적으로 중요하고 지배적인 위치를 점유한다. 특히 11월 11일이 기념일인 1차 대전과 5월 8일이 기념일인 2차 대전은 프랑스 역사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두 전쟁으로 인식되고, 기념되어진다. 두 전쟁은 비교적 최근의 전쟁이며, 징집된 프랑스 군인들에 의해 프랑스 본토에서 행해진 전쟁이고, 결국은 승리하여 현재 프랑스 사회의 모태가 된 전쟁으로 평가된다.

양차 대전과 같은 전쟁에 대한 기념, 더 나아가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념은 1998년 설립된 '문화홍보부' 산하 '국가기념고위원회(Haut comité des Célébration nationales)'에 의해 시행된다. 저명한 역사가와 대학교수 집단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역사, 문학, 예술, 과학, 기술 등의 영역에서 중요한 사건에 대한 기념일 제정, 다양한 기념행사 기획 등의 일을 담당한다.<sup>21)</sup> 다양한 기념문화활동 사업 중 특별히 전쟁과 관련된 기념 사업은 1992년 이래 수상이 관장하는 '역사기억정보심의회(Délégation à la mémoire et à l'information historique)'에 위임되었는데, 그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박물관 정책을 담당하고 현대의 주요 전쟁이나 분쟁 관련 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한다. 연구 활동과 청소년 대상의 교육활동을 병행하며, 현대 분쟁 관련 장소에 대한 방문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그 가치를 높이고 활성화하는 작업을 담당한다.

역사기억정보심의회는 국가기념일(특별히 양차 대전 종전 기념일인 5월 8일과 11월 11일) 관리, 양차 대전 관련 심포지엄 개최, '2차 대전 기억위원회' 설립과 활동 지원, 자료 관리, 전시회 기획, 양차 대전 소개 사이트인 '기억의 여정(Les Chemins de la Mémoire)'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sup>22)</sup>

2005.htm

21) 국가기념고위원회의 관련규정은 <http://www.admi.net/jo/19980930/MCCB9800695A.html>에서 참조할 수 있다.

역사기억정보심의회는 1999년에 국방부 산하 '기억, 기록 그리고 유산국(局)(Direction de la Mémoire, des archives et du patrimoine)'에 의해 대체되었다. 이 기관의 공식사이트인 '기억의 여정' 메인 화면에는 3개의 주요 전쟁만이 소개될 뿐인데, 보불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이 그것이다. 양차 대전이 프랑스인들의 기억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기억, 기록 그리고 유산국'은 전쟁기념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조정하는 역할"만 수행할 뿐이고 사업 관련 입안과 활성화는 국가에 의해 직접 재정지원을 받는 '재향군인청(ONAC : Office National des Anciens Combattants)'이 담당한다. 또한 1997년에 설립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병사기억고위원회(Haut Conseil de la mémoire combattante)'도 전쟁에 대한 기억과 기념 활동을 수행하는 대표적 기관이라 할 수 있다.<sup>23)</sup> 주요 임무와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조 : 위원회는 공화국의 대통령에게 전쟁과 현대 분쟁의 기억을 보호하고 군인들의 가치를 보존하게끔 하는 임무를 부여한다. 위원회는 특별히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 교육과 문화 영역에서만 아니라 역사연구의 영역에서도 기억의 강화에 대한 모든 유용한 조처를 간구하고 시행한다 : - (군인들의) 희생을 영구히 기억하고 명예, 헌신과 조국의 의미를 장려하기 위해 기념식 내용 규정과 관련한 제안들을 작성한다 : - 모든 상황에서 병사들의 용기와 가치를 알리는 데 주력한다.

3조 : 수상, 국방부, 교육부, 문화부, 내무부 그리고 재향군인과 전쟁희생자 담당 장관들은 이 위원회의 위원들이다. 병사기억고위원회는 이와 함께 : - 기억의 문제와 이해관계에 있는 5명의 선택된 인물들 ; - 경제, 사회 평의회 위원 한명 ; - 프랑스 학사원 위원 2명 ; - 재향군인과 전쟁희생자국(局) 이사회 위원 2명 ; - 병사들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개인적으로 관여했

22) 원문은 <http://www.admi.net/jo/19980531/DEFA9851015A.html>에서 참조할 수 있다.

23) 알랭 들리생, 『기념의 왕국 프랑스의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알제리전쟁의 기억 만들기』, 전진성·이재원 역음, 『기억과 전쟁 : 미화와 추모 사이에서』, pp. 137-138.

으며 기억부문에 있어서의 능력을 발휘한 선택된 6명의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sup>24)</sup>

1년에 한 번만 소집되는 ‘병사기억고위위원회’는 ‘국가기념고위위원회’에 비해 덜 알려져 있고, 덜 투명한 방식으로 일한다고 평가된다. 다음 장에서 살펴볼 ‘군사박물관’ 내의 ‘샤를 드골 기념관(Historial Charles de Gaulle)’이 바로 이 병사기억고위위원회에 의해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역할이나 활동 내역은 설립장령과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서만 그 성격을 파악할 수 있기에, 병사기억고위위원회가 주도하는 전쟁기념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아직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공공의 전쟁기념에 문화부, 역사가, 옛 전투원, 혹은 각 지자체가 자유롭게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전쟁기념 사업은 종종 프랑스 정부의 가장 높은 수준에서 직접 결정되고 관장된다. 전쟁기념 사업은 군인들에 대한 기억의 이름으로 국가와 군대의 역할을 강조하며, 교육적이고 교훈적이고자 한다. 따라서 ‘기억, 기록 그리고 유산국(局)’이나 ‘재향군인청’, 그리고 ‘병사기억고위위원회’와 같은 프랑스의 공식적인 전쟁기념 기관이 시행하는 문화적이고 관광적인 차원의 전쟁기념 사업은 전쟁기념에 대해 아주 적은 사실만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누구를 위한 기념이며, 무엇을 위한 기념인가, 그리고 어떻게 기념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성찰 없이 이루어지는 기념사업은 국가와 기념 대상 간의, 그리고 국가와 기념되지 못하는 대상 간의 갈등을 끊임없이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 4. 아테나(ATHENA) 계획과 양차 대전 기념

1905년에 개장한 군사박물관은 국제적인 군역사 박물관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수년 전부터 대대적인 증·개축 정비 작업에 들어갔다. 무기(Armes), 기술(Téchniques), 역사(Histoire), 상징(Emblématique), 국가(Nation), 군대(Armée)의 첫 자를 따와 아테나(ATHENA) 계획이라고 명명한 이 포괄적인 박물관의 현대화 계획은 1992년 박물관장에 취임한 페로(Jacques Perot, 1992~1998 재임) 장군이 야심차게 기획한 이래, 후임인 드보(Bernard Devaux, 1998~2003 재임) 장군과 브레스(2003-현재 재임) 장군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2009년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7천 5백만 유로(약 1,300억 원)를 들여 5단계에 걸쳐 진행될 아테나 계획은 “사물(유물) 박물관에서 역사 박물관으로”라는 기치하에 새로운 박물관으로의 탈바꿈을 준비 중이다.<sup>25)</sup> 공사가 완공되어 이미 문을 연 전시관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아테나 계획 중 가장 역점을 두어 준비한 양차 대전 관련 전시관이다.

2006년에 개장한 이곳의 상설 전시공간은 기존의 2,300m<sup>2</sup>에서 3,500m<sup>2</sup>로 확장·정비되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훨씬 다양하고 풍부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전에 전시되지 않았던 수백여 점의 유물들이 새롭게 진열되었으며, 70mm 대포와 ‘마른 전투의 택시’ 등이 복원되었다. 대포나 군복과 같은 전통적인 군사유물과 함께 도판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는데, 212장의 사진과 많은 포스터, 관련 기사와 당시의 그림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참호의 축소모형 같은 새로운 전시형태를 선보이기도 하며, 15편의 영화와 교육적인 멀티미디어 자료가 관람객들을 기다린다. 1968년과 1971년에 개장했던 양차 대전 전시관이 지나치게 사진자료 위주라는 비판에 대한 자

25) 아테나 계획에 대해서는 Robert Bresse, “Mener à son terme le projet ATHENA (2009)”, *Revue de la société des Amis du Musée de l’Armée*, no. 129, 2005, pp. 71-74에서 참조할 수 있다.

24) 전문은 <http://www.admi.net/jo/19970111/ACVX9600147D.html>에서 참조할 수 있다.

성의 차원에서 이러한 전시물품의 질적, 양적 다양화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서관 2층에서 시작되는 양차 대전 전시실은 전쟁과 군대, 무기의 현대화를 보여주는 유물과 영상자료로 구성된다. 그 가운데 2차 대전 시기 레지스탕스의 활약을 중심으로 해방운동 시기만을 특화시켜 마련한 전시실과 새롭게 마련된 드골(Charles de Gaulle) 장군 기념실은 프랑스가 보존하고 내세우려는 국가적 자존심과 이념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장소이기도 하다. 어떤 의미에선 군사박물관의 존립근거가 바로 이 시기를 정점으로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군인들뿐 아니라 다양한 대상에 대한 기념논의에도 불구하고 군사박물관에서 보여지는 레지스탕스 운동과 드골에 대한 '특화된 기념'은 프랑스가 소중하게 추구해 온 '위대하고 영원한 프랑스'를 상징하는 듯하다.

그렇다면 군사박물관의 새로운 소장품과 전시방식을 통해 프랑스는 여전히 이전과 같은 국가주의 담론을 생산하고, 전달하며, 교육하고, 기념하고자 하는 것일까? 베커(Jean-Jacques Becker) 교수와 오도앵-루조(Stéphane Audoin-Rouzeau)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1914-1918 전쟁'은 기념에 대한 다양한 전망을 제시했다.<sup>26)</sup> 그것은 민족주의자, 공화주의자, 평화주의자, 그리고 참전군인 등 거의 모든 계층을 포괄하는 기념이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영광과 군인들의 영웅적인 행위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었다. 개선문에서 행해진 11월 11일의 1차 대전 종전기념식처럼 위령비 앞에서의 의식은 민족주의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근본적으로 '공화주의적'인 장례의식이었다. 프로(Antoine Prost) 교수가 그의 저서에서 잘 보여주었듯이,<sup>27)</sup> 재향군인들과 '안면 부상병(gueules cassées)'들을 기

26) Jean-Jacques Becker et Stéphane Audoin-Rouzeau, *La France, la Nation, la guerre, 1850-1920*(Paris : SEDES, 1995), p. 366.

27) Antoine Prost, *Les anciens combattants et la société française, 1914-1939*(Paris : FNNSP, 1977, 3 tomes).

념하는 행위는 평화주의가 민족주의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었다.

양차 대전에 관한 기존의 군사사와 외교사 중심의 연구에서 탈피하여 좀 더 전체적인 전망 속에서 전쟁을 바라보려는 전쟁의 사회사, 더 나아가 전쟁의 문화사 연구는 두 번의 학술대회<sup>28)</sup>를 통해 이루어졌고, 뒤이어 등장한 다양한 저서들이 이러한 연구경향을 뒷받침하였다.<sup>29)</sup> 세월의 간극을 넘어 프랑스인들은 양차 대전에 참전했던 일반군인들의 편지와 수첩, 그리고 증언을 접하게 되었다. 전쟁의 스펙터클한 측면과 병사들의 무용담을 다룬 영화와 소설, 연극 대신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겪은 남성과 여성, 그리고 아이들의 일상생활을 보게 되었다.

군사박물관의 전시실에서도 이러한 연구경향을 반영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국가나 사령부의 시선에서 병사와 민간인의 시선으로의 전환과 같은 작금의 전쟁 관련 연구경향의 변화가 박물관의 전시 형태와 내용, 즉 진열품과 전시공간의 문법을 구성하는 공간 디자인, 유물의 배치, 조명, 보조 텍스트 등과 같은 요소들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다. 기존의 전쟁기념관에서 일반적으로 강조되어 표현되는 전쟁의 승리와

28) 1988년 베케르(J.-J. Becker)와 오도앵-루조(S. Audoin-Rouzeau) 교수는 파리 10대학에서 「유럽사회와 1914-1918 전쟁(Les sociétés européenne et la guerre de 1914-1918)」이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1992년에는 다른 학자들과 함께, 페론 역사관(L'Historial de Péronne)의 개관을 기념하여 「전쟁과 문화(Guerre et culture)」라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은 1994년 책으로 출간되었다. Jean-Jacques Becker et al., *Guerre et cultures, 1914-1918*(Paris : Armand Colin, 1994).

29) 대표적인 저서로, 전쟁에 참여한 프랑스인들의 여론에 대해 조사한 베케르(J.-J. Becker)의 연구(*1914 : Comment les Français sont entrés dans la guerre*, Paris : Presses de la FNNSP, 1977), 재향군인들에 대한 프로(A. Prost)의 연구(*Les anciens combattants, 1914-1940* Paris : Gallimard/Julliard, 1977), 양차 대전 시기 영국 사회에 대한 윈터(Jay Winter)의 연구(*The Great War and the British People*, London : Macmillan, 1985) 프랑스 노동자들에 대한 로베르(Jean-Louis Robert)의 연구(*Les ouvriers, la patrie et l'évolution : Paris, 1914-1919*, Paris : Belles lettres, 1995) 등을 들 수 있다.

해방의 환희와 함께 파리의 군사박물관은 전쟁의 경제적 측면, 여성의 역할, 병사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 후방의 시각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특별히 양차 대전 구역은 전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전시실을 획기적으로 새롭게 보수, 증축하여 마련된 이 공간은 양차 대전의 사건들뿐 아니라 전간기와 양차 대전 시기 일반시민들의 역사와 그들의 망델리테(mentalité)를 동시에 추적해 볼 수 있게 만들었다. 드골 장군이 '30년 전쟁'이라고 부른 것처럼, 양차 대전 간의 연속성을 보여주면서 병사들의 전장에서의 일상뿐 아니라 후방의 민간인들의 삶도 살필 수 있게 했으며, 위로부터의 역사와 더불어 아래로부터의 역사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이와 더불어 양차 대전의 도입부로서 전쟁으로 서서히 치달는 모습과 군사적, 심리적 준비 기간인 1870~1914년 시기를 다룬 전시실을 따로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민족주의나 국민 국가적 이데올로기의 재현공간인 군사박물관은 상이한 기억의 지층들도 담아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군사박물관은 관객들에게 승리를 기념하고 애국적 열정을 호소하는 장소로 환영받았을 뿐 아니라, 집단적 애도와 죽은 자에 대한 예배의 장소로도 기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흔히 기념관이 기념비성을 강조하기 위해 묘사하는 거대주의 어법은 파리의 군사박물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프랑스가 이곳에서 드러내려는 국가주의 이념의 정점은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그리고 2차 대전 시기의 해방운동으로 제안된다. 그러나 군사박물관에서 강조되는 국가주의와 영웅주의가 그와는 대척점에 있는 민중의 역사적 의미와 공존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면서도 의미심장하다. 어쩌면 가장 대표적인 국민적 정체성 형성의 도장이라 할 수 있는 전쟁기념관에서까지도 프랑스가 다양한 기억을 수용하고,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든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타 국가의 군사박물관에서는 어떻게 전쟁기념문화를 국민들에게 접목시키고 있을까? 이를 살피는 작업은 물론 간단치 않다. 하지만 개략적인 비교 고찰을 통해 프랑스 전쟁기념문화의 특성을 좀 더 드러내 보

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여기서는 독일의 국립 전몰자 추모기념관이라 할 수 있는 '노이에 바헤(Neue Wache)'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양차 대전 시기 프랑스와 같은 연합국의 일원으로 전쟁을 수행했던 영국이나 미국의 전쟁기념관은 프랑스의 그것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워싱턴의 국립2차대전기념관(National World War II Memorial)이나 런던의 국립군사박물관(National Army Museum) 등을 통해 나타나는 전쟁에 대한 기념은 정의를 위한 투쟁, 전체주의에 대항한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거대서사의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이들 기념관은 전장에서의 군인들의 활약과 승리를 위한 헌신을 이야기하며, 전쟁에 대한 기억이 다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다양한 집단의 '기억들'을 인정하고, 차이의 정치학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점들은 같은 승전국인 프랑스의 군사박물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전범국이자 패전국인 독일의 경우는 이들 연합국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쟁을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한다.

희생자에 대한 기억의 초점이 점령지 주민과 차별받았던 소수집단에 놓여 있는 독일에서는 자국 전몰장병에 대한 기념비적 의미 부여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전몰장병은 더 이상 '호국영령'이나 '순국선열'이 아니라 엄청난 희생을 야기한 가해자로 이해되었고, 이들을 전장으로 동원했던 국가는 범죄국가로 기억되었다. 2차 대전 이후,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로 얼룩진 전쟁은 결코 찬미의 대상이 될 수 없었기에 더 이상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을 찬미하는 전통적 기념비 양식이 유지되기는 어려웠다. 이제 기념물이 세워져야 한다면, 그것은 죽은이들을 앞세운 영광의 기념물이 아니라, 산 자들에게 과거의 범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일깨우는 기념물일 수밖에 없었다. 부담스러운 과거에 대한 '합의에 의한 침묵'이 유지되었던 1950년대가 지난 후, 1960년대부터는 과거의 범죄를 상기시키는 기념물이 독일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했고, 전국에 산재한 강제수용소들이 기념의 장소로 탈바꿈했다. 1980년대 이후 홀로코스트를 중심으로

한 나치 범죄와 전쟁 관련 기념물 조성 붐이 독일 전역에 확산되면서부터 공식적 기념에 수반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과 대안이 활발하게 제기되었다. 그러나 자기 민족을 희생의 서사에서 주인공으로 삼고자 하는 욕구에 관한 한 독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는 1993년에 개관한 베를린의 노이에 바헤(Neue Wache), 즉 새로운 위병소 건물을 둘러싼 논쟁을 통해 잘 드러났다. 사건은 1993년 11월 14일 국민애도의 날, 보수적 역사정책을 표방하는 콜(Helmut Kohl) 수상이 유대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기념비적 건물을 통일독일에 어울리는 국민적 기억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한 데서 시작된다.<sup>30)</sup> 콜에게 있어 1차 세계대전에서 2백만, 2차 세계대전에서 7백만에 달하는 독일인 사상자에 대한 애도는 이제는 더 이상 유예되어서는 안 될 일이었던 것이다.

이 건물은 본래 프로이센의 신고전주의 건축가 쉥켈(Karl Friedrich Schinkel)이 나폴레옹에 대한 '해방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왕의 경비 초소로 건립했으나 1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독일제국이 무너지면서 용도를 상실했다. 1차 대전이 끝난 뒤에는 전몰장병을 추모하는 장소로 개조되었고, 2차 대전 후에는 동독정부에 의해 "파시즘과 양차 세계대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장소로 전용되었다. 이 건물의 역사적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아는 콜 수상은 민족의 영광과 비애가 동시에 깃들여 있는 이곳을 "전쟁과 압제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념공간으로 정착시킴으로써 부정적 기억의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건물 내부에는 1차 대전에서 전사한 의용병 아들을 그 어머니가 품에 안고 비통해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캐테 콜비츠(Käthe Kollwitz)<sup>31)</sup>의 피에타상이 세워졌다. 콜비츠의 작

30) 최호근, 『독일과 일본의 2차 대전 기억문화』, 전진성·이재원 엮음, 『기억과 전쟁: 미화와 추모 사이에서』, pp. 208-216.

31) 독일 출신의 여류화가 콜비츠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모두를 겪으면서 1914년에는 아들을, 1942년에는 손자를 잃었다. 죽을 때까지 반 나치와 반전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 활동을 한 그녀는 싼 값에 보다 많은 이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판화작업을 많이 했다.

품에서 남성 전사자의 죽음은 모든 희생을 대변한다. 그러나 과연 평범한 독일 시민, 여성, 독일 병사, 나치 친위대원, 피난민, 유대인 수감자, 그리고 유대인보다 더욱 사회적 소수자였던 집시나 장애인, 동성애자들의 죽음을 동일한 차원에서 논할 수 있을까? 콜비츠의 피에타는 새로 설치된 비문과 공조하여 모든 사망자를 희생자로 평준화하고 있는 것이다.<sup>32)</sup>

통일 직후 독일정부는 '가식적인 애도'의 전략을 통해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려 했다. 희생자에 대한 보편적 인간애와 평화 운운은 어찌면 위선적일 수 있다. 독일인들이 자신의 고난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도록 부추길 수 있다. 독일인들도 자신의 조상을 애도할 권리는 있지만 죄는 결코 상대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sup>33)</sup>

## 5. 맺음말

프랑스의 역사가 피에르 노라는 과거 20년 사이에 기념행사, 기념비, 사적(史蹟)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그것을 통제하려는 모든 시도까지 삼켜버리고 마는" '공유기억 과식증'에 현대인이 걸렸다고 지적한다. 노라는 이러한 폭발적 현상을 과거에 대한 태도의 변화, 즉 "역사적인 것에서 기억되는 것, 더 나아가 기억되는 것에서 기념되는 것으로의 이행"과 결부지어 설명한다.<sup>34)</sup> 노라의 분석에서는 역사의 두 측면이 지닌 중요한 긴장관계가 두드러진다. 한쪽의 시점으로 보면 역사의 연구란 해석이다. 그것은 다양한

32) 전진성, 『유럽에서의 홀로코스트 기억: 아우슈비츠, 노이에바헤, 유대 박물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세계의 역사기념시설』, pp. 34-35.

33) *Ibid.*, p. 36.

34) Pierre Nora, "L'ère de la commémoration", in *Les lieux de mémoire*, vol. 3(Paris: Gallimard, 1997), pp. 4687-4719.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 사상이나 제도의 계보, 인간사회에 변화를 가져오는 힘을 이해하기 위한 지식의 탐구다. 그러나 다른 시점으로 보면 역사는 '동일화'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가 과거와 맺는 관계는 원인이나 결과에 대한 사실의 지식이나 지적인 이해뿐 아니라 상상력이나 공감에 의해서도 형성된다. 전시자료관, 기념관, 사적, 역사소설이나 영화 등은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과 정서적인 공감을 나누는 관계로 이끈다. 과거 사람들의 경험이나 감정에 대해 상상하고, 그들의 고통이나 죽음을 애도하며, 그들의 승리를 기뻐하는 것이다.<sup>35)</sup>

과거에 살았던 타자와의 이러한 동일화는 종종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하거나 재확인하는 기반이 된다. 과거에 있었던 무언가를 상기하고 그것을 자신의 일처럼 여김으로써 우리는 어떤 특정집단에 속해 있다는 감각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자신이 놓인 위치를 규정한다. 실로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행위야말로 집단적 정체성을 불러일으킨다. 요스 페리(Jos Perry)는 이를 두고 "우리는 회상한다. 고로 우리는 존재한다"고 표현한 바 있다.<sup>36)</sup>

프랑스 혁명이나 미국 혁명 등의 예에서 보여지듯이 과거의 기념은 새시대와 구시대 사이에 가능한 한 긴 거리를 두어 과거와 단절하려는 욕구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러나 현대의 기념은 과거와의 단절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정체성의 기반을 그들의 것으로 구성하려는 각 집단의 노력과 과거에 대한 대립적인 표상들에 관한 첨예한 인식으로부터 생겨난다. 기념은 과거를 다시 만드는 작업과 관련되며, 현재 혹은 미래의 의미를 다시 만드는 것, 즉 '역사 만들기'라고 볼 수 있다. 심리학자, 인류학자, 역사가들의 연구를 통해 기억과 정체성의 본성이 밝혀지면서 이들 양자가 단지 있는 그대로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고 각인

35) Tessa Morris-Suzuki, 김경원 역, 『우리안의 과거 : media, memory, history』(휴머니스트, 2006), p. 40.

36) *Ibid.*, p. 41.

된 것이며, 심지어 어떤 특정한 이해와 정치적 입장에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모든 정체성은 어떤 특정한 관계를 함유하는 동시에 위장하기도 한다. 국민적 정체성 역시 모든 역사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형성되고 재구축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책임은 국민적 정체성이 만들고 지탱해 온 관계를 찾아내기 위해 바로 이것을 해독(解讀)하는 데 있다.

각 나라의 기본적인 가치를 대변하는 전쟁기념관은 그 우선적인 기능이 나라를 위해 싸운 용사들의 죽음과 희생에 대한 회상을 통해 보는 사람들이 지적,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를 의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 기념물을 제작할 때 어떤 인물을, 또는 어떤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한 결정은 미적인 고려에 앞서 일련의 정치, 사회적인 고려와 의도가 개입되게 마련이고, 바로 이러한 성격 때문에 결정 과정에서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은 그룹과의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기념관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그 공간에서 "무엇이 기념되고 있느냐?"라고 묻기보다는 "무엇이 기념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며, "기념되는 것과 기념되지 않는 것이 어떤 식으로 결합하느냐?"는 질문일 것이다. 더 나아가 특정 역사적 사건이 어떤 그물망 속에서 어떻게 특정한 방식으로 기념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결국 그 과정들이 진행되는 당시 사회의 모습을 파악하는 것이 될 것이다. 즉, 기념되어야 할 전쟁에 대한 기억은 누구의 기억이며 그것이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갖느냐 하는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의 기억인가, 평범한 군인의 기억인가, 아니면 이들의 전투를 지켜보고 전쟁을 함께 경험한 일반 국민들의 기억인가라는 문제를 인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은 이들에게 진정으로 다가서기 위해서는 이들을 대변한다고 자처하는 대신 이들을 재현할 수 있는 나름의 형식을 끊임없이 새롭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고민들이 공유되고 쌓이면서 한 사회는 보다 성숙한 자기정체성에 도달할 수 있다. 전쟁의 참화를 겪은 사람

들의 기억을 기록하는 공간, 전쟁의 기억을 평화의식 형성과 연결시키는 사회적 공간,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나눔으로서 생명과 인권의 가치를 상기할 수 있는 기념공간을 추구하는 일이야말로 전쟁이 남긴 트라우마를 드러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될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09. 5. 7, 심사수정일 : 2009. 7. 15, 게재확정일 : 2009. 8. 12)

주제어 : (파리)군사박물관, 전쟁기념, 기념문화, 집단기억, '기억의 터', 국가 정체성(민족 정체성), 트라우마, 프랑스, 아테나 계획, 양차 대전

<ABSTRACT>

The Two World Wars and French War Commemoration Culture  
- The case of 'Musée de l'armée' of Paris -

Lee, Jae-won

The 'Musée de l'armée' and the War Museum possess two main functions. First, they affirm a specific political agenda concerning the war and the nation and propagate it. Second, they bring out both the intellectual and emotional reaction of the people through recollection of sacrifices and deaths of the courageous soldiers. Inside the 'Musée de l'armée', the carefully selected articles, the form and the arrangement of the exhibition are deeply intervened by a series of political, social consideration instead of purely artistic ones. Also, the collectivization of death enables the nation to solidify its image as an autonomous nation state, therefore playing the role as a significant political tool.

The exhibition of the Two World Wars opened on July 1st 2006 at the 'Musée de l'armée' located in Paris, in order to alter the nature of the museum from 'an object museum' to a 'museum of history'. As a result, the museum not only provided the audience with an examination of the historical events but also the 'peoples' history' and their 'mentality' as well. As General de Gaulle put it 'the Thirty-year War,' the exhibition attempted to capture the continuity of the Two World Wars. It consists of the artifacts and visuals which represent the war, the army, and the modernization process of the weapons. The exhibition hall which openly emphasizes the significance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during the World War II

highlights the intention of France as a nation. Also, the recent construction of General de Gaulle's Memorial museum is known as the space where the national pride and ideological justification of the nation takes place.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nature of the 'Musée de l'armée' and its reason for existence circulates around this specific period.

However, nationalism and heroism that are emphasized in 'Musée de l'armée' coexist with popular history. Perhaps even in war museum where the most representative national identification is formed, France might try to accept various memories and heal the war trauma.

Key Words : Army museum(Musée de l'armée), war commemoration, commemoration culture, collective memory, 'realm of memory', national identity, trauma, France, Athena plan, Two World Wars